

간호연구 지지프로그램이 간호사의 연구태도와 연구 장애 요인에 미치는 효과

양영옥*

¹가야대학교 간호학과

Effects of Nursing Research Support Program on the Attitudes and the Barriers of the Nurse

Young-Ok Yang^{1*}

¹Division of Nursing, Kaya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연구 지지프로그램이 간호연구에 대한 태도와 장애요인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연구는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은 P시에 위치한 2개 병원 간호사 45명이었으며, A병원의 간호사 23명을 실험군으로 B병원 간호사 22명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진행 동안 실험군에게 간호연구 지지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즉, PPT와 유인물을 이용하여 간호연구 방법을 교육하고 연구 단계를 점검하고 지지하는 프로그램을 1달에 한 번씩 총 9회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군의 연구태도 점수가 평균 62.65점으로 대조군 70.18점보다 낮았다($t=-2.380, p=.022$). 즉 연구 태도 요인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간호연구 지지프로그램이 간호사의 임상 간호 연구 활동에 대한 부담감 감소에 의미있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Nursing Research Support Program on the attitudes and the barriers about nursing research.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July 1, 2012 to June 30, 2013. The subject was the 45 nurses who were worked two hospitals located in P city. Twenty-three nurses in A hospital were designated as experimental group and 22 nurses in B hospital were designated as control group. The process of this study included the nursing research support program for experimental group. It was conducted nine times with nursing research methods by the PPT and handouts and nursing research feedback and spent times for support. The results are as follows: Experimental group's attitude score was lower than the control group with an average 62.65 points, 70.18 points($t=-2.380, p=.022$). It means that the experimental group had a positive attitude to nursing research than the control group. In conclusion, this study revealed that it had a significant effects on decreasing nurse's stress for clinical nursing reasearch activity.

Keywords : Attitude, Barrier, Nursing Research, Support Program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지식의 개발과 확대는 간호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1]. 간호연구 중 임상에서 진행되는 임상 간

호연구 활동은 임상에서 간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주요 전략 중의 하나로 간호대상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에게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한다[2]. 이를 통해 간호사들은 계속적인 간호전문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직업적 만족감을 증가시켜

본 논문은 2012년도 가야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Young-Ok Yang(Kaya Univ.)

Tel: +82-55-330-1083 email: iflover@kaya.ac.kr

Received October 1, 2015

Revised (1st November 10, 2015, 2nd November 23, 2015, 3rd November 26, 2015)

Accepted December 4, 2015

Published December 31, 2015

그 중요성이 경험적으로 입증되고 있다[3]. 특히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간호학술지의 수적 증가, 임상관련 연구의 증가, 병원내 간호부 주관 학술대회 개최 등으로 임상 간호연구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4]. 이러한 시대의 흐름으로 인하여 간호연구를 수행하는 주체가 교수, 연구소, 학위과정의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도 그들의 호기심과 경험이 반영된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5].

하지만, 임상 간호연구 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반하여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간호연구를 3교대 업무를 병행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간호연구 활동이 매우 힘든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6]. 따라서 간호연구가 간호학문과 실무의 질적 향상, 간호사의 직업적 만족감 등의 본 목적을 벗어나 심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여겨지게 되었다. 특히 간호현장에서는 3년제 출신 간호사들이 많고 전문대학 재학시절 간호연구에 대해 학습한 후 거의 학술대회나 학회지 등을 검색한 경험이 없는 간호사들이 간호부의 지시에 의하여 간호연구를 하고 있다[7]. 따라서 많은 간호사들이 주제 설정에서부터 어려움에 직면하여 간호연구 과정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연구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간호연구에 대한 회의와 자신감 상실 등의 태도를 보였다[8]. 이는 가장 최선의 간호방법에 대한 지적 탐구를 활용해야 하는 간호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시간적인 소비와 학술대회에 대한 지원비 등을 고려할 경우 행정지원과 연구비 소비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간호연구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연구설계의 미숙, 자료수집 방법의 어려움, 일부 한정된 대상자 선택 등으로 간호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이를 임상에서 활용할 수 없었다고 보고하였다[9].

실제로 간호사가 주체가 된 많은 연구가 발표되고 있으나, 임상연구를 주제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선행연구에서 연구의 촉진요인으로 연구를 위한 전문간호사를 채용하여 role model로 활용하거나 연구평가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샵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6-8].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학병원급 이상의 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에서 학술대회를 진행하면서 간호연구를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활동을 위한 산학체계가 필요하다[9]. 이러한 측면에서 간호대학과 병원

의 간호부가 간호연구 지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연구에 대한 태도와 장애요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임상 간호연구 활동의 지속적인 발전과 효과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본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연구 지지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한 비동등성 실험군 대조군 사후 설계 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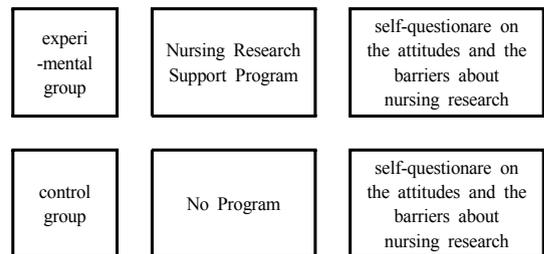


Fig. 1. Research Design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이며 P시 소재 종합병원 중 간호연구 활동을 발표하는 2개 병원 간호사 4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간호연구 지지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표본을 G power 3.1.2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 효과크기 0.8로 하였을 때 표본수 21명이 요구되었으며 탈락율을 고려하여 각각 25명을 선정하였다[10]. 따라서 본 연구대상은 2012년 간호연구 활동을 발표하는 2개 병원, 각 5개 병동에서 연구활동에 참석하는 간호사 전원이 연구대상이었으며 최종 연구대상은 실험군 23명, 대조군 22명이었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Kim과 Yang[6]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크게 일반적 특성, 간호연구에 대한 태도 및 장애요인으로 구성하였다.

2.3.1 연구태도에 대한 질문지

연구 활동에 대한 태도는 총 1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거의 그렇지 않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6점의 6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연구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Kim과 Yang[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3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93이었다.

2.3.2 연구 장애 요인에 대한 질문지

장애요인은 총 2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거의 그렇지 않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6점의 6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Kim과 Yang[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4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80이었다.

2.4 연구 진행 절차

2.4.1 간호연구 지지프로그램 개발

먼저 간호사가 연구과정 동안 어려웠던 장애요인을 중점으로 구성된 간호연구 지지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간호연구 지지프로그램은 본 연구자가 사전연구[6-8]를 통해 파악한 장애요인을 바탕으로 간호연구 단계별 교육과 지지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먼저 교육프로그램은 대학에서 간호연구를 학습하지 않은 간호사를 고려하여 간호연구의 필요성, 문헌고찰 방법, 설문지 작성법 및 설문지 검토 등 연구도구 확인,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수집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 통계실습, 논문 작성법, 참고문헌 작성법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교육내용을 각 간호연구 활동을 하는 간호사의 단계에 맞추어 1달에 한 번씩 교육하였다. 교육프로그램은 PPT와 유인물을 이용하여 간호연구 방법 60분과 지지활동 30분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9회 실시하였다. 지지활동 프로그램은 이전 단계의 연구 활동을 확인하고 이전 단계의 어려웠던 점과 장애요인을 다시 확인하여 수정하고 앞으로 진행할 연구단계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주의사항을 사전에 알려 주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과정 중 경험한 점 등을 서로 토의하게 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통계실습 2회는 연구자가 소속한 K대학

교를 실험군에 소속된 간호사가 방문하여 자료분석실의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실습을 하였다[Table 1].

Table 1. Nursing Research Support Program

| No | Theme | Content | method |
|----|--------------------------------------|---|-------------------------|
| 1 | Background/literature | Introduction to this program, search to the article related to 4 subject by research gro-up | PPT, hand-out, internet |
| 2 | literature/research instrument check | Review literatures and select useful literatures / how to search correct instrument | PPT, hand-out, article |
| 3 | Research instrument check | Research instrument check by team | PPT, hand-out |
| 4 | Data collection | Collect the correct way to 5w1H, explain to the incorrect data collection | PPT, hand-out |
| 5 | Data analysis | How to enter data using Exc-el | PPT, hand-out |
| 6 | Statistics1 | Results analysis using spss and describe tables | SPSS |
| 7 | Statistics2 | Review tables and describe papers | PPT, hand-out, SPSS |
| 8 | Reference | Review papers focus on the discussion and describe references | PPT, hand-out |
| 9 | Presentation | Making PPT and practice the presentation by each team | PPT, hand-out |

2.4.2 자료 수집 방법

P시 소재 종합병원 중 간호연구 활동을 발표하는 병원의 간호부를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승인과 협조를 허락한 2개 병원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2013년 간호연구 활동을 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목적 및 연구 참여의 자율성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동의서를 작성한 간호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동의서에 서명한 병원간호사에게 먼저 중재전 연구 활동에 대한 태도 및 장애요인에 대한 자가기입식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1개 병원은 실험군으로 다른 1개 병원은 대조군으로 선정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선정은 간호부에서 매달 간호사를 소집하여 지지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한 G병원을 실험군으로 간호사의 소집이 어렵다고 한 S병원을 대조군으로 임의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G병원을 대상으로 간호연구 지지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간호연구 활동이 마무리된 후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다시 간호연구에 대한 태도 및 장애요인에 대한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대조군은 P시 소재 종합병원 중 간호연구 활동을 발표하는 병원이지만 간호연구 지지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았고 실험군과 같은 시기에 2회의 설문지만 작성하게 한 후

본 연구가 종결된 후 윤리적인 차원에서 1회만 간호연구 활동 지지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연구과정 중 실험군은 2명이 탈락하였으나 대조군은 8명이 탈락하였는데 그 이유는 퇴사, 근무지 변경, 개인적 사유로 연구를 중도에 그만 두는 경우였다. 대조군의 탈락률이 많았고 새로운 간호사가 연구에 참여하게 되어 간호연구 지지프로그램 적용 전후의 연구태도 및 장애요인에 대한 비교연구가 어렵게 되어 두 군 모두 간호연구 활동을 마친 후의 질문지만을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에서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을 위하여 χ^2 검증을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는 독립 t-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동질성 검증

본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실험군은 최저 연령 22세, 최고 연령 44세까지였으며 평균 30세이었다. 대조군은 최저 22세부터 최고 43세까지 평균 29세이었고 두 군은 통계적으로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근무기간은 실험군은 최저 8개월부터 최고 23년이었으며 평균 7년이었으며, 대조군은 최저 5개월부터 최고 21년이었고 평균 7년으로 통계적으로 동일한 군이었다[Table 2].

Table 2. Homogeneity Test of Characteristics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n(%) or M(SD) | | χ^2 or t (p) |
|----------------------|-------------|---------------|--------------|-------------------|
| | | Exper. (n=23) | Cont. (n=22) | |
| Age(year) | | 30.13(5.79) | 29.55(5.15) | 14.852(.536) |
| Working period(year) | | 7.80(5.49) | 7.26(4.79) | 32.327(.451) |
| Education-al level | college | 14(60.7) | 19(86.3) | 3.737(.091) |
| | university | 9(39.1) | 3(13.5) | |
| Position | General | 19(82.6) | 16(72.7) | 0.635(.491) |
| | Charge | 4(17.4) | 6(27.3) | |
| Research | yes | 17(73.9) | 17(77.3) | 0.793(.534) |
| | no | 6(26.1) | 5(22.7) | |
| Seminar | yes | 3(13.0) | 3(13.6) | 0.003(1.000) |
| | no | 20(87.0) | 19(86.4) | |
| Journal | yes | 3(13.0) | 3(13.6) | 0.000(1.000) |
| | no | 19(82.6) | 19(86.4) | |

3.2 간호연구 지지프로그램 효과 검증

간호연구 지지프로그램 효과검증을 간호사의 연구 태도와 연구 장애 요인으로 검증한 결과 연구태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연구 장애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연구태도에서 실험군은 평균 62.65점으로 대조군 70.18점 보다 낮았다($t=-2.38, p=.022$). 이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간호연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연구 장애 요인에서는 실험군은 평균 91.18점으로 대조군 98.68점 보다 낮았다.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역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연구 장애 요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t=-1.96, p=.058$) 간호연구 지지프로그램이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연구 장애 요인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Table 3].

Table 3. Effects of Nursing Research Support Program on the Attitudes and the Barriers of the Nurse

| Variables | Mean (SD) | | t | p |
|-----------|---------------|--------------|-------|------|
| | Exper. (n=23) | Cont. (n=22) | | |
| Attitudes | 62.65(9.51) | 70.18(11.65) | -2.38 | .022 |
| Barriers | 91.18(8.53) | 98.68(15.76) | -1.96 | .058 |

4. 논의

간호사들이 임상 경험을 토대로 간호연구를 하는 것은 간호전문직의 만족도 향상뿐만 아니라 환자 간호와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권장할 수 있는 활동이다 [11]. 그러나 간호현장에서는 간호사의 간호연구에 대한 준비 부족과 바쁜 업무 등으로 효과적인 임상 간호연구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활동을 위한 산학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간호대학과 간호부가 간호연구 지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3년제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태도와 장애요인을 연구한 Park[7]의 연구에서는 4년제 간호사의 구성이 많아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학회 참석과 학술지 구독 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응답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Kim 등[4]의 연구에서는 4년

제 출신 간호사, 학력이 높을수록, 대학원을 진학할수록, 경력이 높을수록 임상연구 활동에 적극적인 관여를 한다고 하였다. Park[8]의 연구에서도 학력과 학술대회 참여 경험 등이 간호연구 활동의 촉진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 간호사들은 학회 참석이나 학술지구독 등이 거의 없어 간호연구 활동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간호연구 지지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간호연구 지지프로그램은 문헌고찰을 통하여 병원간호사들이 간호연구 장애요인으로 선정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Kim 등[4]의 연구에서는 3교대를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Park[11]의 연구에서는 일과 연구를 병행, 자료 수집의 어려움, 관련문헌 찾기의 어려움 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Park[7]의 연구에서도 문헌고찰 및 자료 활용 등에 대해 간호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러한 활동이 일부 수간호사나 행정가의 일로 생각하며 일반간호사들이 하는 것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헌고찰을 살펴보면 일과 연구를 병행하며 특히 3교대를 하는 간호전문직의 특수성을 변화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산학연계를 통한 간호연구 지지프로그램은 대학과 병원간의 노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이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 간호연구 지지프로그램 효과를 간호사의 연구 태도 변화와 연구 장애 요인 인식 변화 등으로 검증한 결과 연구태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연구 장애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연구태도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지지프로그램 적용 후 간호연구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연구 논문은 너무 학술적이다’와 ‘연구논문은 너무 복잡하다’, ‘연구 논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임상에서 쓰는 용어와 차이가 있다’ 등의 문항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현저하게 낮은 평균을 보여 연구태도에 대해 더 긍정적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 장애 요인에서는 실험군은 평균 91.18점으로 대조군 98.68점 보다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간호연구 지지프로그램이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연구 장애 요인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특히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연구 활동에 병원 관계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일과 병행하므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단하다’와 ‘일과 병행하므로 자기 시간이 부족하다’가 평균 5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임상에

서 유능한 전문가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항에서는 실험군 평균 2.59점, 대조군 3.45점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고무적인 점이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이 통계적으로는 동질하였으나 실험군의 학력이 4년제가 10명, 대조군에서 3명으로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초기 연구 설계 당시에는 학력에 대한 배분이 있었으나 대조군에서 탈락자가 많으면서 3년제 간호사가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두 군 모두 학교에서 간호 연구를 배운 후 한 번도 연구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본 프로그램 교육을 받았으므로 연구에 대한 어려움은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험군에 비해 대조군이 탈락률이 많은 것이 지지프로그램이 연구를 진행하는 간호사들에게 간접적으로도 지지가 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산학협력을 통한 간호연구 지지프로그램이 간호사들의 연구 활동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산학협력 연구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두 개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적용한 연구결과이므로 연구 결과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간호연구의 방향은 근거중심 간호가 이슈가 되고 있으며[12] 실제적으로 간호에 적용할 수 있는 실험연구와 질적 연구, 웹기반 관리 방안을 권장하고 있다[13-15]. 임상간호연구에서도 간호대상자에 대한 생명존중과 윤리의식, 조직문화와 간호사의 스트레스 등 간호연구 활동이 다양화되고 있다[16-19]. 간호사의 매일의 일상과 경험이 실제로 간호연구로 연결될 수 있다[20]. 그러나, 실제로 간호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산학연계를 통하여 간호사들의 연구 활동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은 임상간호 연구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임상간호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지지프로그램의 결과를 활용한 추가적인 산학협력 간호연구로 보다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적용한 간호연구 지지프로그램은 연구태도에서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간호연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향상하였으며, 연구 장애 요인에서는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연구 장애 요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1) 간호연구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2) 간호연구 활동 결과 활용 등 연구 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이 계획되어야 한다.
- 3) 간호대학과 간호부의 간호연구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발전적이고 반복적인 연구가 지속되어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간호연구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References

- [1] Lee HK, Yang YH, Gu MO, Eun Y. Introduction to Nursing Research, 4th ed. Hyunmoonsa, 2009.
- [2] M. You, "The Application of Organization Theories to Nursing Research: A Critical Review and Implication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e Administration*, Vol.15, No.3, pp.346-354, 2009.
- [3] M. A. Choe, J. S. Jeong, K. C. Lim, J. H. Kim, K. S. Kim, J. S. Kwon, S. J. Kim, K. H. Kim, C. Y. Kwak, K. O. Park, K. E. Lee, E. S. Kim, K. Lee, "Research Trend of Studies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995-2008",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16, No.2, pp.95-105, 2010.
- [4] M. Y. Kim, S. Y. Kim, Y.Y. Kim, J. H. Byen, Y. Y. Jeung, "A study of Relating Factors to the Research Activity in an University Hospital",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8, No.1, pp.117-128, 2002.
- [5] I. S. Jeong, M. O. Gu, K. S. Kim, K. J. Lee, S. Yang, "Educational Needs Assessment on Research Ethics among Nursing Research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0 No.4, pp.515-523, 2010.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0.40.4.515>
- [6] Y. Kim, Y. O. Yang, "On the Attitudes and the Barriers about Nursing Research",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Oral Presentation, April 27, 2012.
- [7] Park HS. A Study on Accessibility, Usefulness, Barriers of Evidence Based Nursing of Clinical Nurse.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of Keimyu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5.
- [8] J. W. Park, "Barriers and Facilitators to the Research Activity in Nursing Practice",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3, No.1, pp.235-252, 1997.
- [9] E. H. Lee, H. S. Kim, "Nurses' Perception of Barriers to Research Utiliz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0, No.5, pp. 1347-1356, 2002.
- [10] Tabachnick BG, Fidell LS.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4th ed. Needham heights, MA, Boston, Allyn & Bacon, 2001.
- [11] Hwang JY. Evidence-based Nursing Practice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Acute Confusion Patients.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of Keimyu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4.
- [12] K. C. Lim, K. O. Park, J. S. Kwon, J. S. Jeong, M. A. Choe, J. H. Kim, K. S. Lee, "Registered Nurses'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 about Evidence-Based Practice at General Hospitals in Korea",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17, No.3, pp.375-387, 2011.
- [13] A. Yarcheski, N. E. Mahon, T. J. Yarcheski, "A Descriptive Study of Research published in Scientific Nursing Journals from 1985 to 2010",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49, No.9, pp.1112-1121, 2012. DOI: <http://dx.doi.org/10.1016/j.ijnurstu.2012.03.004>
- [14] M. Choe, N. C. Kim, K. M. Kim, S. J. Kim, K. S. Park, Y. S. Byeon, S. R. Shin, S. Yang, K. S. Lee, E. H. Lee, I. S. Lee, T. W. Lee, M. O. Cho, J. H. Kim, "Trends in Nursing Research in Korea: Research Trends for Studies Published from the Inaugural Issue to 2010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nd the Journals Published by Member Societies under Korean Academy of Nursing Sc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4, No.5, pp.484-494, 2014.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4.44.5.484>
- [15] P. Wilson, B. Rodgers, "Research on Falls Prevention and Physical Activity in Older Adults and a Notice of a New Web-Based Quality System by the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Home Healthcare Nurse*, Vol.24, No.10, pp.632-637, 2006. DOI: <http://dx.doi.org/10.1097/00004045-200611000-00006>
- [16] M. Kim,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of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6 pp.4048-4055,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6.4048>
- [17] E. Yu, Y. Yang, "ICU nurses' Ethical Attitudes about DN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4, pp. 2691-2703, 2015.
- [18] Y. Yeun, "Job Stress, Burnout,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8, pp. 4981-4986, 2014.
- [19] Y. Lim, Y. Cho,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Health Status(SF-36) Among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7 pp.4745-4757,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7.4745>

- [20] D. F. de Aguiar, K. G. Camacho, "The daily Activity of the Nurse in Clinical Research: an experience report", Revista-Escola De Enferma Gem Universidade De Sao Paulo, Vol.44, No.2 pp.526-530, 2010.
-

양 영 옥(Young-Ok Yang)

[정회원]



- 1992년 2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2년 2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2016년 2월 : 경남 간호사회 학술위원
- 2007년 3월 ~ 현재 :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간호이론, 간호대학생, 간호교육, 임상수행능력